

남아공·케냐 지역 포장산업 실태조사

낙후된 포장현실로 보아 국내업체 진출가능성 높아

박형우/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포장학회 재무이사

이 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포장연구실 박형우 실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고 그곳의 포장산업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 편집자주 —

남아공 Pak process 95를 참관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우선 서울김포검역소에서 황열병주사를 출발 30일전에 맞아야 하는데 안내책자는 1주일 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말라리아 약 복용이 불가하다. 황열병(yellow fever) 접종후 최소 10일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 10일후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하며 이 약도 10일이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황열병은 유효(효과)기간이 10년이므로 그 이전에 맞아 두는것이 좋을 것이나 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출발당일 황열병주사를 맞고 싱가포르항공 SQ 879편으로 13일 서울을 떠나 2시간 30분후 대만 장개석 공항에 도착했다.

1시간 뒤 싱가포르를 향해 4시간 30분의 비행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 찬기(chan gi) 공항에 19:57분에 도착하였다. 2년전보다 너무나 변해버리고 발전되어 있어 배가 아픈(?) 심정으로 여기저기를 다녀 보았다. 통과객 머무는 장소가 서울김포공항 대만의 장개석 공항 처럼 100평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입국 심사대 앞 부분 공항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모든시설, 약국, shopping가, 서점은 물론 심지어 US달러로 8\$ 8짜리 사우나, 사우어와 6시간만을 잘 수 있는 공항건물 2층의 호텔(싱글이 35 US\$)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특히 의자의 배치와 꽃과의 조화, 우리의 김포공항이 초라해 보였다. 14일 새벽 01시 15분에 싱가포르발 요하네스 버그행 SQ40편에 탑승하여 10시간 15분 여정을 또 겪어 나가야 한다.

기내식과 서비스가 KAL이나 아시아항공 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다. 운이 좋아(?) 3인이 앉아야 할 좌석에 혼자 앉아가게 되어(다른 좌석은 거의 만원임)등을 좌석에 대고 한숨을 자고 나니 이륙 후 7시간 정도 지나고 있었다.

아침 5시에 남아공 요하네스 버그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에 1시간 가까이를 보내는 동안 자이레에서 사업하시는 이우진사장을 만났다. 비자를 받고 나오니 또 김성수 사장님을 뵈게 되었는데 자이레행은 비행기가 1주일에 1회 있다. 그날 비행기도 12시 인줄 알았는데 8시에 있다고 해서 급히 수속을 하니 waiting이었다. 같이 식당에 가서 아프리카의 상황과 사업동향에 대해 상세히 듣고 필자도 다시 9시발 나이로비행 Sodafica Air Line으로 나이로비로 향하기 위해 출국수속을 하고 나왔다.

시간여력이 있어 전화를 한국에 직접 걸었다. 상당히 대화를 나눈 뒤에 통화시간에 따라 13\$ US를 지불하였고, 아프리카에 대한 칼라관 각국의 특징, 조류, 동물, 바다생물 등에 관한 참 좋은 많은 책들을 보고 4시간을 날아서 나이로비에 오후 2시 05분에 도착했다. 황열병 등에 관한 yellow card가 걱정되었는데 전혀 묻지도 않았고, 입국수속은 간단했다. 출발당일 펜스레 예방주사를 맞았나 싶었다.

4시발 케냐항공 KQ 620편으로 몸바사로 가야했기에 수속을 하고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보니 좌석이 없고 다



◀ 남아공 포장연구소의 Oakley부장과 함께

음 비행기 6시 25분발을 타야만 했다. 아무리 항의해도 'x야 찾아라' 식으로 대꾸도 없다. 피곤한 데다 흑인들의 그 독특한 향기가 곁들여지니 이제 싸우고 싶지도 않아 기다리다가 상당히 높아보이는 사람이 보여 그에게 다시 항의했더니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First class를 제공해 주며 VIP라운지로 안내를 하면서 양해를 부탁했다.

처음 가보는 VIP라운지에는 각종 주스류, 음료, 빵, 술등이 진열되어 있어, 목을 축이고 나니 한결 나아졌다.

밤늦게 몸바사 비치호텔에 여장을 풀고 밖을 보니 바다와 야자수가 드리워진 곳, 호텔안에는 실내 수영장 풀장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1박에 80\$이었고 후진국 어디나 같지만, 택시비가 비싸, 15km에 무려 18,000원, 한끼나 식사대 보다 세배나 비싼 물가사정, 시끄러운 유럽인들이 밤새 즐겨노는 소리가 내방에 메아리쳐 온다. 새벽에 동터 잠시 해변백사장을 걷는데, 모래의 결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희고 가늘고 모래가 아닌 단단한 길같은 모래사장 그러나 야자수가 바다를 향해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어 아프리카가 아닌 아열대의 분위기로 생각 되어지곤 했다. 아침식사 후 500ksh(한화 10,000원)에 해저탐험을 시작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기들, 산호들, 말미잘... 사진이나 TV를 통

해서만 보았는데 직접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하니 너무나 신기했다. 빵을 들고 서있으니, 열대어가 내손위에 다가와 빵을 먹고 내 손바닥을 쪼는 것 같았다. 해삼, 불가사리, 조개, 해초, 흰 모래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열대어, 길이가 60cm정도되는 물구나무서 있는 고기, 물안경을 쓰고 있는데 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고 싶었다. 몸바사의 수산시장을 갔으나 규모가 의외로 작았고 현대포장은 없고, 나무상자에 담겨 있을 뿐, 과일, 야채도 소비자 유통단계에서는 포장도 없고 몇개에 얼마하는 식이었다. 이것을 HDPE봉투에 담아 주었다. 나이로비에 다시와서 Diplomat라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앞으로 만나야 될 인사들과 해야할 일들을 다시 정리했다. 16일 Jomo Kenyatta Univ의 Food Science & Post harvest Technology과에 들렀다. 한국에도 아직 수확후 관리기술(post harvest tech.)에 관한 공식명칭이 되어 있는 학과가 없는데 영국문화원의 잔재인가? 라고 생각하며 거리가 30여 km인데 24,000원에 흥정하여 갔다. 가는 길에 한국인이 지은 Safari park Hotel이 보였다. 참 아름답게 잘지은 호텔이었다. 30분후 Jomo Kenyatta대학(전임 대통령의 존함)에 와 보니 잘 꾸며져 있었다. 규모면에서는 케냐에서 가장 크다.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의 지원을 받은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 GC, spectro

photometer, dryer, 농축기, 제빵기 등등..., JICA가 지금까지 35억¥을 썼고 매년 5억¥씩 이 대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과 인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었다. 필자가 만났던 H. Koaze씨도 수확 후 관리기술분야 기술 자문관으로 1988년부터 와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에 대한 학생들의 인상은 대단히 좋았다. 80년대 초부터 이 대학과 협력을 통해 일본을 심고 키우고 있는 일본인, 우리도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농대생이 8,000여명에 식공과가 150여명, 학과장 응우교수는 미국 Kansas대학에 연수했던 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다. JICA 연수생의 지휘감독을 위해 岡山대학에서 나오미치교수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와 계셨다. 포장에 관한 강의는 교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케냐에 포장 필름의 경우 LDPE와 PP가 주종을 이루며, 라미네이팅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오 후에 Nairobi Univ.의 식품공학, 영양학에 갔다. 학과장 Dr. Imungi 선생을 만났는데 정말 바쁜 일정이었다. 둘이서 시간을 내 도서관에 가서, 가공식품의 생산현황, 농수산물 생산현황, 포장재 생산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았으나 불가한 실정이었다. 가까스로 1992년판 실태보고서를 찾았으나 복사할 곳이 없었다. 학과장 방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보내주기로 하였다. 케냐 최대의 대학이면서 아프리카의 관문인 나이로비 대학이 이정도였다. 실험장비는 조모케냐대학보다 결코 우수하지 않았다. 경치와 위치는 참 좋았고 조경과 꽃피어 있는 캠퍼스는 정말 부러웠다. 다시 차를 타고 Wakulima Market을 갔다. 질척거리고 냄새나는 것은 재래시장 어디나 같았다. 망고는 PP마대에 담아 윗 부분은 사이살삼으로 만든 끈으로 그물망으로 포장하였고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였다.

토마토만 목상자나 플라스틱 상자(거의 없음)에 담아 유통하고 있었다. 감자, 고구마, 양파 모두의 유통용 포장은 PP마대 그것도 50~80kg들이었다. (우리 건고추자루보다 더 크다). 시장의 규모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청과건물 빈만큼 컸다. 각 산지에서 트럭이나 소형 경운기 비슷한 운반구로 모여들었고, 포장개선이냐 품질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었다.

1. Jomo Keyatta Univ.

J. Wango가 학과장으로 있으며 학과 이름은 Dept. of Food Science & Postharvest Technology였다. 아직 우리나라도

[표 1] 케냐의 주요 1차산물 생산실태

(천톤)

	'90	'91	'92	'93
차(Tea)	197.0	203.6	188.1	215.0
커피	111.9	87.1	88.4	77.8
옥수수	527.7	303.5	324.1	241.8
밀	78.5	199.0	125.9	73.1
면	18.8	8.4	2.8	2.5
사이살마	39.3	38.8	34.1	35.1
제충국(톤)	136.4	183.8	211.6	220.0
사탕수수(백만톤)	4.2	4.0	3.7	3.8

*자료: ECONOMIC SURVEY 1993 및 EIUV 1993

[표 2] 연도별 각산업의 구성비(%)

산업구조(GDP배분)	'90	'91	'92	'93
농업	28.2	27.3	26.2	25.1
임업	1.7	1.8	1.9	1.9
수산업	0.3	0.3	0.3	0.3
광업	0.3	0.3	0.3	0.3
제조업	13.3	13.5	13.6	13.8
건설업	4.9	4.7	4.5	4.4
상업 및 호텔	11.0	10.9	11.1	11.1
교통통신	5.9	6.0	6.1	6.1
기타	34.4	35.2	36.0	37.0

*자료: ECONOMIC SURVEY 1994

[표 3] 주요품목별 수출

(US\$ 백만)

차 (tea)	274	277	295	322
커피	193	159	128	190
원예작물	140	134	130	135
석유제품	122	185	147	116
제충국	18	23	23	17
소다회	21	22	17	21
사이살마	17	13	11	12

[표 4] 주요국별 수출

(구성비 %)

영국	19.5	17.6	18.3	16.0
독일	8.7	11.1	6.5	7.3
우간다	6.5	5.6	7.1	8.9
EC	44.3	40.8	39.7	35.9

*자료: ECONOMIC SURVEY 1994

수확후 관리기술 관련과가 없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
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대학은 케냐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이며 학교
이름이 케냐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따 만들어진 대학이
다. 학생수는 농대만 8,000여명되며 식품가공 수확후
관리과는 15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안에 연구장비가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JICA의 기술자문관 H. Koaze가 수확 후 관리기술과 포
장 강의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었고, 관계기관과 농민
등에게도 실습과 강의를 맡고 있었다.

H. Koaze는 1988년 케냐에 와서 지속적인 지원활동
을 하고 있다고 한다. JICA가 조모 케냐타 대학에 지원
한 금액이 35억(약 280억원) ¥이며, 금년에도 5억 ¥(약
40억원)을 지원코자 한다. Wango교수의 안내로 분석
실, 저장실, 공학실, 미생물연구실, 수확 후 관리실 등
을 두루 살펴보았다.

제빵 실습중인 학생들, 감자 박피, 치즈제조 실습을
하고 있었다. 어딘지 서툰것 같으나 아프리카가 이 정
도라니 이해가 안되었다. JICA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인
것으로 판단은 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화, 세계화
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정부차원의 자금과 인력(기술진)의 장기적 지원제도
가 속히 정립되어야 됨을 느끼며 일본에 대해 아주 좋
은 인상을 갖고 있는 케냐인이 다시 뇌리를 스치고 지
나간다.

2. Nairobi University

학과장 Imungi(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교
수를 뵈고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의 가공식품에 관해 협
의한 바 케냐에 가공산업은 소스류(tomato, cherry, Hot
sauce 등), 제빵, 치킨, chip 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
으나 다른 산업은 미약하다고 했다. 가공용 pilot실습실에
가보니 UNDP지원 설비가 있었고, 여기에 분무건조기,
드럼건조기, 착즙기, 압착기등 식품공학에 필요한 기계
류는 상당히 갖추어져 있었다. 도리어 우리나라 몇 대학
을 제외한 보통 대학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다.

케냐 지역의 가공식품산업 실태와 농산물 생산실태
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이로비대학 도서관을 갔다.



▲ 술병의 구조 디자인이 이색적이다.

Imungi교수와 들어서 FAO자료, 각 기관 발행 자료를 3
시간동안 뒤졌으나 자료가 거의 정리가 안되어 있어,
간신히 1992년판 농수산물 생산실태에 관한 자료(책
720p)를 입수하여 copy하려 했으나 복사기 실정도 여의
치 않았다. 복사실태도 양종을 뿐 아니라 원본 자체의
문제점이 더 컸다. (우리 70년대의 등사기로 인쇄된 것
임). Imungi교수가 그 책을 대출해서 복사해 보내주
기로 하고 언덕위에 있는 나이로비대학을 나왔다. 어디서
나 그렇겠지만 원하는 자료가 입맛대로 준비되어 있지
는 않았다.

학과장의 이런 호의는 인삼차 덕분이었으며 인삼차
의 위력이 느껴질때 마다 대한민국의 후손임이 자랑스
럽게 느껴졌다.

1895년 영국보호령에서 1963년 6월 독립하여 Jomo
Kenyatta 대통령이 1978. 8월까지 통치하다 서거함으로써
Moi부통령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1993년도 수출은
1,268백만 불 수입은 1,743백만 US였고, 1차산물 생산실
태는 표 1과 같다.

최근 경제는 90년 까지는 서방세계의 도움으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91년 이
후 2.2%에 그치고 있다. 인플레이는 90년에 15.8%, 91년
에 19.6%, 92년에는 30%, 93년에는 46%에 달했고 94
년도 40%이상의 물가가 상승하였다.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5) 주요품목별 수입 (US\$ 백만)

산업용기계류	521	414	314	225
원 유	368	321	341	326
철 강	144	129	114	104
차 량	170	134	90	95
RESINS & PLASTIC	73	77	68	67

(표6) 주요국별 수입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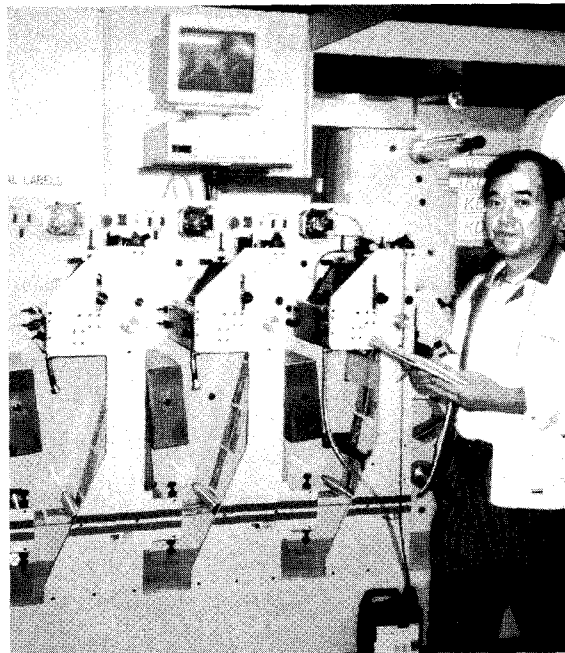
영 국	18.3	16.3	11.5	11.9
U A E	13.3	12.4	16.3	15.0
일 본	9.0	11.5	9.4	7.6
EC	45.0	42.0	33.7	34.5

*자료: ECONOMIC SURVEY-1994

관광산업이 5.6%이상 증가하고 계속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대외거래현황은 표3, 4와 같다.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모든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의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10-40%까지이며, 부가가치세는 5~75%까지 부과하고 있다.

케냐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좋으며, 아마도 일본의 영향을 우리가 덤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 동판이 없이 컴퓨터로 제작하는 스티카인쇄기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흰 서양인은 싫어하고 있다. 케냐의 상권은 3대째 케냐에 살고 있는 인도인이 식품점, 잡화점, 잡화상, 금은방, 전자상 및 제조업까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인도인들의 무자비한 인건비 착취등으로 인해 싫어하고 있으며, 인도인의 손 안엔 품목 등을 선정하면 성공이 어느대륙 보다 유리하다는 심장섭(브랜드명, 회사명:아쿠아바, 케냐에서 가장비싼 가방회사:1개당 80,000원이상.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회사, 선금받고 물건주는 시나리오를 만든 독실한 크리스찬, 심집사:나이로비 한인교회 출석) 사장님의 조언이 있었다.

왜 중국이나 소련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김갑수 88체육관, 88복싱관장님의 말씀, 81년에 케냐에 첫발을 내디딘 김근배사장님(관광회사 Kenko운영 및 한국식 호텔(?), 민박운영) 등 한인교회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케냐에 한국인은 300여명이며 이중 30여명이 공관, 주재원의 가족이고 120여명이 개인 사업관련 가족이며, 150여명이 선교사가족이라함, 이중 120여명이 장정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나이로비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선교사가족을 제외한 150여명중 120명이 교회에 나가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모태가 되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될텐데 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언론인들이 모든 국민의 가슴에 아프리카는 르완다, 이디오피아 남아공의 데모만을 연상토록 보도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라 한다.

인구 2,500만명의 선두그룹 나이로비 대학, 면적이 582,646km³ (남한의 약 6배), The Excellency다니엘 아랍모이 대통령의 지도하에 케냐 아프리카 민족동맹(KANU)1당 체제의 나라, 순박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고 민족의 자극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나라. 케냐!! 100US\$로 4,200ksh(셸링)을 바꿀 수 있는 나라. 높고 빈땅이 많은데도 닭고기, 밀가루, 감자를 다량 수입하고 있는 케냐.

3. East Africa Packaging Industry

케냐 최대의 골판지 제조회사로 종업원 600명 규모이

며(우리나라 회성제지, 전주제지 규모) 골판지를 만들고 여기에 인쇄와 지합까지 하는 일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이사 Elic HALES P. L. Mngoda기술이사를 만나 공장의 개요에 대해 들었고, 케냐지역의 pulp를 이용한 포장실태에 대해 듣게 되었다.

국내용보다 수출용 박스제도가 더 많은 물량을 접하고 있는 EAPI는 캐나다의 포장산업그룹의 기술사원으로 생산되고 있다.

시장점유율 45%인 규모에 걸맞게 원단 pulp를 싣은 container가 공장 부지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공장다운 면모를 갖고 있었다. 인쇄는 1~3도이내인데 인쇄정도가 우리에게 못지 않는 우수한 수준의 골판지 인쇄를 하고 있었다.

직원들도 EAPI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케냐에 직원이 600명인 공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4. Cosmo Plastic LTD.

사주가 인도인 Mita Sheh이며 3자녀가 자금 구매 담당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도인 회사로 직원이 190여 명 되는데 LDPE와 HDPE 및 PP 봉투가공 및 인쇄 업체로는 케냐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 케냐내 플라스틱 필름 가공분야에서 시장점유율 40%가 넘는 절대적인 회사였다.

인쇄기술이 국내에 비해 뒤져있었고, 가공기술, 특

히 slotting을 위한 칼날이 무딘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은 비단 이 회사만이 아니고 인도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한결같은 상황이었다.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케냐 원주민을 못믿어서 항상 감시하고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것이라는 거다. 플라스틱 수지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 케냐의 플라스틱 산업 실태이며, 적층필름은 유럽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다.

5. 상공부 공업국

상공부의 등록과장 Otiso씨의 안내로 케냐의 플라스틱 등 포장재 생산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1개의 table로 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 업체별로 나와 있어서 정리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정리하여 보내주기로 하였다.

케냐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은 없었다. 상공부등 각 부처의 건물이 한국과 같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 다행히 Otiso과장이 90년 모이대통령 방한시 동행하여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었다. 케냐에서의 자료조사는 인쇄된 자료보다는 각부처의 담당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름길이며, 항상 인삼차나 인삼엑기스를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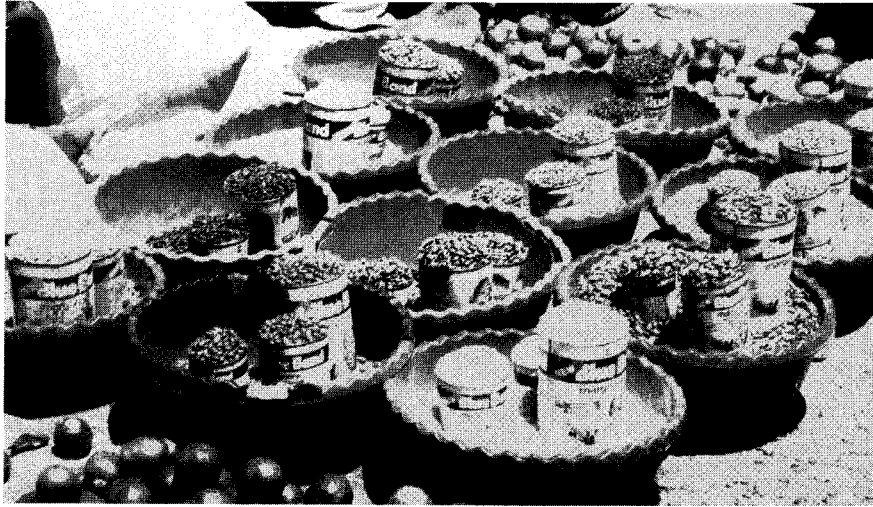
6. Kongo Market

케냐의 림바사에 있는 시장으로 망고, 파파야, 바나나, 레몬, 자몽 등이 모이는 시장이었으나 포장이란 거의 없는 목상자나 고무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 또 mature green상태가 아닌 green에 가까운 상태에서 수확하였기 때문에 수확후 맛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특히 많은 과일이 푸른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 날씨가 20도 ~18도 내외의 상당히



▲ 남아공지역의 MA포장 실용예(포도, 오렌지, 토마토, 사과, 메론 등)



▲ 케냐의 산간지역 5일장 모습, 거래 표준단위가 없다.

더운 날씨여서 외온에 의한 추축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거래단위는 kg과 일정량을 쌓은 무더기로 판매되고, 판매사의 포장지는 LDPE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시장까지 운반용 포장재는 대부분이 PP직조대와 목상자로 포장하여 리어카로 운반하여, 유통용 포장에 대한 규격은 시골까지는 거의 도입이 안된 상태였다.

7. Pakprocess '95와 Foodpro '95

Pakprocess '95와 Foodpro '95의 Director J. Knocher와 M. Hook의 안내로 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왔다. 도착한 순간 입구가 너무나 초라해서 무슨 박람회인가 이런가 싶었으나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방문객 모두를 computer와 ID card로 관리하고 있어서 또다시 놀라야 했다.

VIP tag를 붙이고 전시장을 돌아다보니 포장기계 전시회나 다름 없을 만큼 기계류가 많이 전시되었으며, 규모는 서울팩, 서울국제식품박람회의 4 ~ 5배 규모였다. 주로 영국, 이태리, 스위스, 폴란드, 독일과 South Africa와 아시아에서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출품하고 있었고, 한국은 없었다.

진행 본부에 기자실과 VIP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박람회에 그런 자리가 있는가. VIP실에 가 보니 쇼파와 음료, 다과가 마련되어 있었고 기자실에는 FAX

와 전화까지 준비되어 기사를 전송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프리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규모나 운영방법이 우리보다 앞선 South Africa는 더이상 아프리카가 아니었다. 전시회가 또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각 업체마다 조그 마한 선물(?)이나 기념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얻는 재미도 있으나 여기는 그런것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포장지에 생산일시, 유통기간을 기록하는 기계가 고작 inkjet식인데 여기서는 레이저 프린터가 주종이었고, pillow pack에서 T자형 접합 부위의 씰링 상태도 너무나 양호했다.

또 쌀포대 등 중량이 많이 나가는 봉투의 재사용을 위해 Jack를 도입한 포장이라든지 소형 blo-wing 및 Tomson기 등은 잘 만들어진 일관라인 시스템이었다. 스티카나 라벨을 제작시 인쇄를 위해서는 동판이 필요한데 컴퓨터 CAD 시스템으로 도안을 설정하여 키를 누르면 6도인쇄가 저절로 프린팅 되게되니 경제적이고 시간 절약이 큰 장점으로 여겨졌다.

너무나 기대 이상이어서 말문이 막힌다. 8억 인구가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프리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배달민족의 우수한 두뇌들이 손길을 미쳐야 될 것으로 확신 되었다.

8. Ivin & Libingston사

케이프타운에서 수산물취급량이 가장 많은 회사이며, 냉동식품 마케팅 담당 이사 M. Marshal씨의 안내로 남아공지역의 가공식품 유통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우리같이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선박에서 직접 가공회사로 원료가 넘어가 이를 가공용과 생체판매용으로 나누어 자체판매장에서 판

매를 하고있어 품목에 따라서 여러회사의 매장을 다녀야하며, 소량은 슈퍼나 식품판매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Cape town은 일찌기 선진국의 지배와 교역 장소였기 때문에 유통이 한국의 가락시장이나 일본의 오다시장 같지 않고 시장을 대기업이 일단 관리하며 이를 적정량만 마켓에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다. 케이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22층 건물이 전부 이회사의 건물이었다. 여기서는 냉동 가공식품(돈가스, 생선가스, 생선스튜 등)과 냉동 11-let선어의 포장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였다.

농산물 포장실태는 한국보다 나았다. 복숭아도 자두도 배도 포도도 선진국과 같이 소규모 개체포장을 해서 유통되고 있었고, 1박스에 1개의 트레이만 있는 그러한 포장이어서 내용물을 소비자가 보기에 좋고(신뢰도 제고) 박스단위로 구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실정이었다. 누가 이런 포장 실태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망고, 키위 심지어는 양상치도 5kg단위로 나무상자에 포장하여 유통 판매하고 있다.

9. The Institute of Packaging SA

Barry Oakley부장의 안내로 연구동향과 업무를 조사하였다. 포장박람회 관계로 전 연구소가 철사하고 전직원이 박람회 장소에 나와 있었다. 연구소에서 교육(6개

월 과정)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고, 다양하고 계획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다. MAP에 관한 연구와 pulp의 이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플라스틱과 용기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었다.

포장규모가 2조 2,500억 규모에 달했고, 포장인구도 170,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남아공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 포장수준이 우리 보다 결코 뒤지지 않은 것은 국내도 생산 못하는 Dual-ovenable Microwave용 C-PET 트레일러 생산 판매하고 있었고, 포장연구의 인력구성도 한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전문분야 육성도 수행하고 있었다.

10. CISR

식품공학부장 Auberr Parson의 안내로 연구동향에 대해 협의한 결과 그룹은 대부분 영국, 미국 등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SA내의 식품가 공산업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에서나 슈퍼에서 이들의 지도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의 포장 수준은 우리의 롯데나 해태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주스병은 도리어 갈라풀하여(주스색상) 소비자의 소비욕을 돋구어 주고 있었다.

행정수도는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이며 사법수도는 브롬폰테인이다. 면적은 1,223천 km²로 한국의 6배정도이고 인구는 40,285천명으로 인구 밀도가 평방km당 29명인 나라, Republic of South Africa, 흑인이 30,645천명을 76.1%, 백인이 5,171천명으로 12.8%, 혼혈이 3,261천명으로 8.5%이며 아시아계가 1,033천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백인은 영국계와 화란계가 많고 친절하고 상냥하다. 남아공에는 우리교민이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공이나 자이레, 보츠와나, 나미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 와쿠라마 마켓 - 가락동 농수산시장과 같은 시스템